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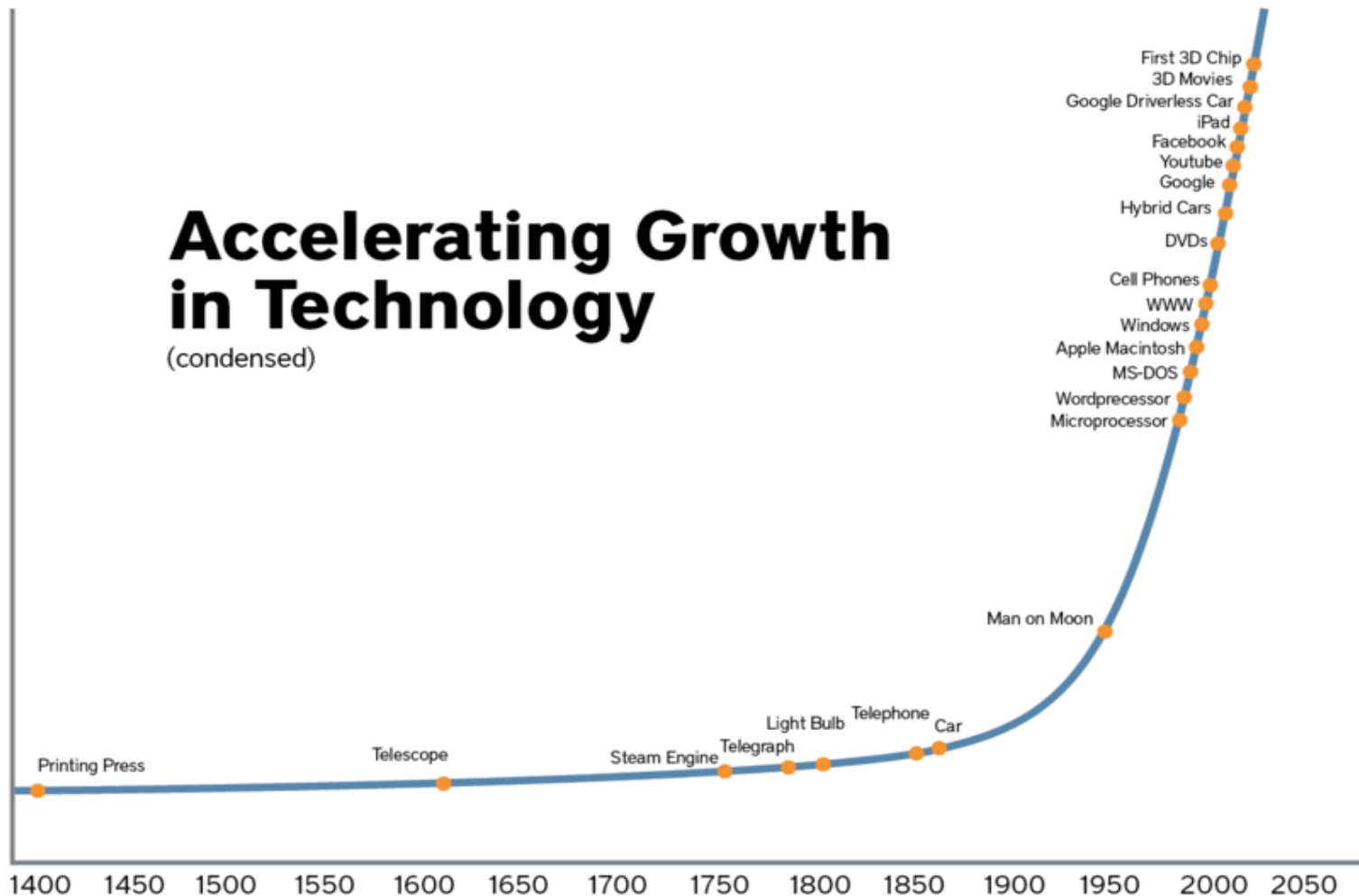
# 독립 기술 크리에이터로서 생성형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나만의 전략

김도균 MCT (2002 ~ Present)

# 특이점 초입에 진입했는가?

‘현재 인류가 지수적 발전의 변곡점에 있다는 증거가 많다’

– 에릭브릭올프슨, <제2의 기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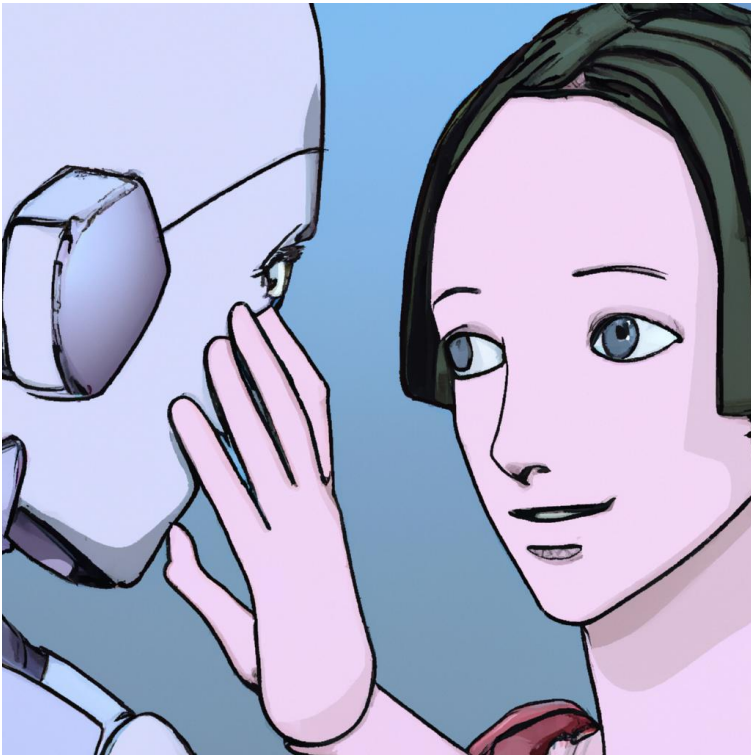
지수적 증가 느껴 보기

# 사람들이 기대하는 AI

= 대화 맥락 및 의도 이해



암묵지 + 분위기 + 눈치 + 유머



## 1 결정적 응답

- 사실 검증 필요성 제거
- 정확한 레퍼런스 제시

## 2 실행

- 주도적인 솔루션 실행
- 의사 결정 도우미

### Prompt

DALL-E

By Azure Open AI

A realistic look at an advanced futuristic AI robot collaborating with humans in a Korean cartoon style.

# 2023.6.9 Fireside Chat with OpenAI with Samuel H. Altman

1

## AI Start-Up Product Market fit.

- Make something people want.

2

## 기본 소득

- AI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3

## 개인용 AI 시대에 에너지 문제 해결

- 저전력 GPU 등, 저 에너지 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이 올 수 있다.

4

## AI 시대 생존을 위한 공부 법

- Learning Something New
- Understanding Low-level details

### Fireside Chat with OpenAI's CEO, Sam Altman in Seoul



글로벌 AI 연구 기술 기업이자 ChatGPT(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대표 샘 알트만)와 소프트뱅크벤처스(대표 이준표)는 이번에 직접 방한하는 샘 알트만(Sam Altman) 대표와 함께 하는 A Fireside Chat (대담) 행사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 합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벤처스가 함께 주최하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을 이끄는 개발자, 창업자, 민간지원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등록 링크에서 참석 신청을 해주시고 참석이 확정 되신 분들은 이메일 및 문자로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일정

-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4:00 (행사 시작 15분 전 입장 마감)
- 주최: OpenAI, 소프트뱅크벤처스
- 후원: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이번 행사에서는 오픈 AI 대표인 샘 알트만과 함께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뉴욕대 조경현 교수 그리고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가 오픈 AI가 추구하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미래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다양한 혁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청중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 등록(마감완료)

본 행사는 당초 예상인원을 초과하여 등록을 조기마감하게 되었습니다.  
Fireside Chat with OpenAI 행사에 보내주신 성원 감사드립니다.



# 블랙 미러 작가의 깨달음

## **Prompt**

DreamStudio

By stability.ai

Create a watercolor painting of a writer typing prompts for a generative AI to write the script for the movie "Black Mirror."



규칙과 틀에 얽매인  
ChatGPT를 통해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 앨빈 토플러의 인사이트

암기 위주 교육은 인간이  
기계화되는 2차·3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

앨빈 토플러,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 보고서' 중에서

—  
한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21세기의 24시간 유연한 작업체제보다는  
사라져 가는 산업 체제의 시스템에 알맞도록  
짜여진 어긋난 교육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 고용의 공동화

-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가 혹은 신체 능력을 요구하는가?
- 반복적인 과제가 주어지는가 혹은 반복적이지 않은 과제가 주어지는가?



# 관찰이 아니라 행동

“사람이 가진 기술은 쓰지 않으면 퇴화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시스템 조작자라고 해도 그의 주요 업무가 행동 보다는 관찰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면 결국에는 ‘미숙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리잔느 베인 브리지, 1983년 <오토매티카>





# 지금까지의 교육...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전

- 산업 혁명 이후 강의장에서 이뤄지는 집체 교육
- 정형화된 일을 잘하는 방법 학습
- 형식의 틀에 갇힌 학습
  - ✓ 뻔한 학습 솔루션 – 경직된 솔루션
  - ✓ 평가를 위한 평가 내용
- 콘텐츠 준비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 정형화된 일은 자동화로 대체된다.
- 비 정형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능력 필요

## 학습 패러다임의 전환

{PCR}

Practice

Collaboration

Reading



# 기본은 언제나 옳다.



서비스는 운영체제 위에서 춤춘다.



멀티 및 분산의 시대는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간다.



데이터를 먹고 크는 스토리지 기술



개발자가 아니어도 스크립트 작성은 좀 해야 하는 시대

- 게으름은 자동화를 타고 온다.
-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 되는 운영의 필수

#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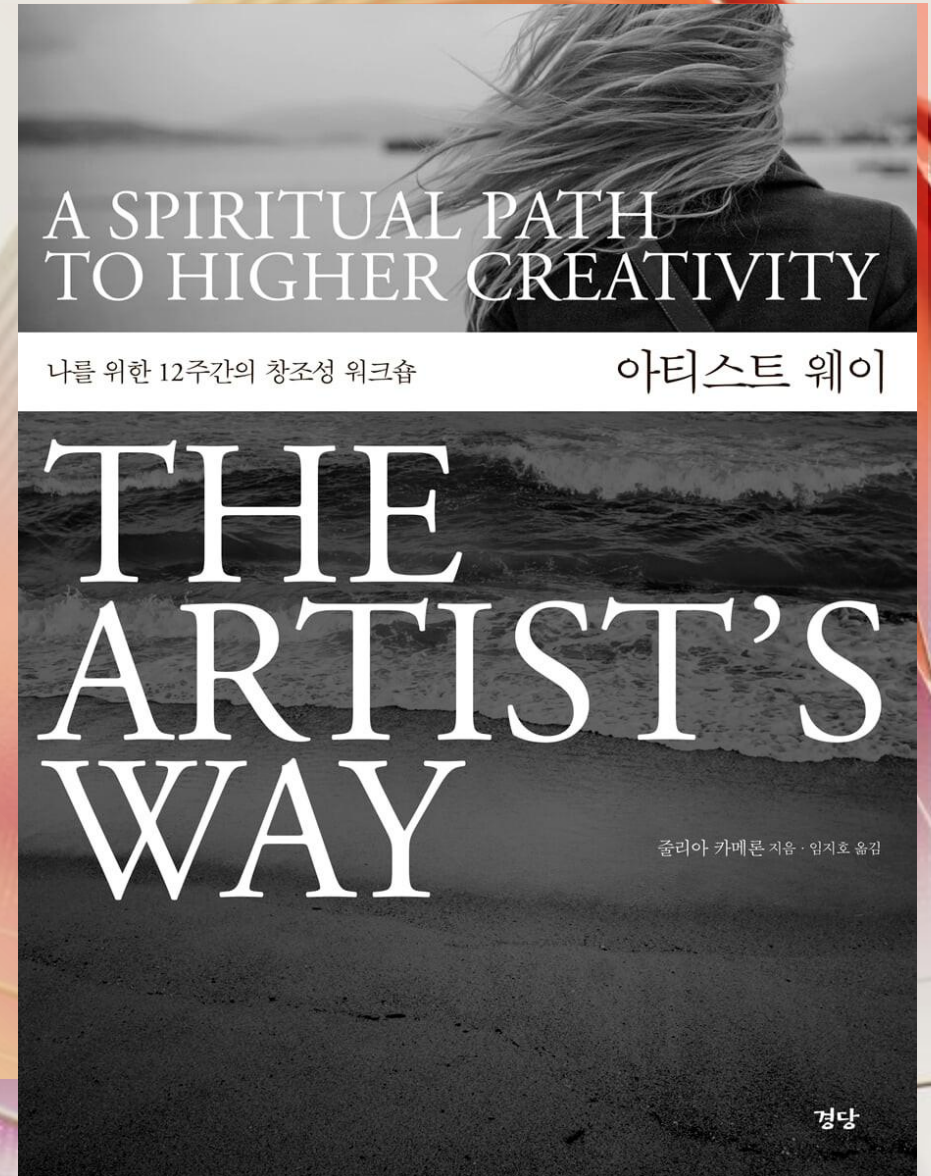
사람을 프로그래밍 하는 행위

“가르침은 가장 혹독한 가르쳐 짐이다”

– 도올 김용옥

“배우는 것(학습)은 **기술**이며 가르치는 것은  
재능이다“

– 피터 드러커



## 인디 트레이너 + 콘텐츠 크리에이터

학습, 창작, 강의라는 활동은 사실 굉장히 고독한 활동이다.

외로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 활동에 생산적인 분위기를 통합하고 나를 중심으로 서사를 구축한다. 때로는 스토리텔링의 중심에 나를 놓는다.

콘텐츠에 영감을 주는 분위기를 강의장에 투영하려고 한다.

콘텐츠와 강의 전개 방식에 대한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려고 한다.

→ 궁극적인 목적은 분위기를 즐기면서 학습하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인간에 의한 가르침이 계속 되어야 할 이유.

교육은 점점 더 인간에 의한 감정적 처리와 AI의 도움으로 기능적 처리를 보완하는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 교육의 현장에서 <동기부여>라는 감정적인 측면을 더 잘 다루는 일은 사람의 영역이다.



# 습관과 루틴

## 운명 전환 모델

비행기  
관습

운명

인생



선한 영향력의 대물림

습관  
점진

- 나쁜 습관

+ 좋은 습관

습관 기록



양질 전환

루틴

얼마나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의지



장소



시간

# 내콘내강

님아 그 콘텐츠를 쓰지 마요!

# 가치와 질

오늘 내가 평가 받은 가치가 동료의 가치가 된다.

# 100세

남은 날이 살아온 날 보다 적어지면 주변을 이롭게 할 일이 무언가 생각해보자.

